

취약계층 맞춤형 금융지원사업 : 도미니카 공화국

도미니카 공화국에 거주하고 있는 파비앙씨는 대학에 즉석식품 공급을 주업으로 하는 평범한 가장이었습니다. 그러나 2020년 코로나 팬데믹으로 학교와의 공급 계약이 취소, 실직이라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이후 지인 소개로 인근 슈퍼마켓의 일을 도우며 생계를 이어가던 중, 그의 성실함을 눈여겨본 가게 주인이 은퇴하며 파비앙씨에게 슈퍼마켓 사업을 넘기겠다고 제안해 왔습니다. 슈퍼마켓 인수 자금이 필요했던 그는 수소문 끝에 굿네이버스 글로벌 임팩트가 설립한 소액금융기관 '폰데코(FONDECO)'를 알게 되어 사업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 파비앙씨는 슈퍼마켓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며 부족했던 큰아이의 학비와 1살 아이의 식비, 병원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고, 인수 전과 비슷한 규모로 매출을 내며 제2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금융접근성 격차가 곧 소득 격차

도미니카공화국은 도농간 금융접근성 격차가 매우 큰 국가입니다. 인구 10만명 당 은행점포 수는 11.7개, ATM(자동입출금기)수는 40.4개로 턱없이 부족하며, 이마저도 도심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위 40%의 최빈곤층 소득자의 금융기관 계좌보유 비율은 38% 남짓으로 세계 평균인 72%의 절반 수준입니다.

이러한 금융접근성 격차는 곧 소득의 격차로 이어집니다. 사업 생산성을 높이려면 투자가 필연적이지만, 이들은 담보와 신용이 거의 없어서 은행권 대출을 이용할 수 없고, 결국 고금리 대출을 반복적으로 이용함으로써 부채의 악순환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 확산으로 인한 실업 증가 및 물가상승으로 인해 취약계층의 빈곤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소액금융기관(MFI : Micro Finance Institutes)인 폰데코는 담보와 신용이 낮은 취약계층에게 고금리 대환대출, 굿네이버스 소득증대 사업과 연계한 농업대출, 운전자금 대출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저리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출 상품은 현금유동성 확보를 통한 대출자의 소득증대를 궁극적인 목표로 하며, “제 때 빌리고 잘 갚는 행위”를 통해 취약계층의 건전한 금융생활과 금융접근성 개선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폭발적인 현지 반응! 희망의 씨앗이 되는 사회적금융

폰데코를 이용하는 취약계층 주민들은 대출 신청서를 작성하고 두 명의 보증인을 확보하는 간단한 대출신청을 통해 1-2주 내에 대출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 월평균 대출건수는 110건, 1인당 평균 대출액은 약 897불(한화 약 1,110,000원)입니다. 이는 도미니카 공화국 하위 40% 노동자 임금의 약 2-3개월치 규모로 취약계층 주민이 현금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충분한 액수입니다.

또한, 현지의 타 MFI 대비 10% 이상 낮은 금리로 상환 부담이 적어 현지 주민들로부터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를 반영하듯 2020년 대비 2021년 집행된 대출액은 2000% 이상 폭발적으로 증가하였고, 기존 대출자들의 입소문을 타고 올해에도 많은 이들이 대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금융으로 취약계층의 자립을 함께 지원해 주세요!

폰데코는 자립의지가 있는 취약계층 주민에게 고금리 대출 상환부담을 줄여주는 고금리 대환자금, 영세 자영업자의 시설개선자금, 사업 운영 자금 등 목적에 따른 다양한 소액대출상품을 운영함으로써 이들의 안정적인 소득 창출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굿네이버스 글로벌 임팩트와 함께 도미니카 공화국의 취약계층 자립을 위한 사회적금융 사업에 동참하여 이들의 자립을 지원해 주세요!

자세한 내용과 후원 문의는 아래 연락처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굿네이버스 글로벌 임팩트 | 임팩트기금본부 | 02-6733-2631 | csv@goodneighbors.org